

# 권력 흥망 함께 하나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림자'

## 53 궁녀

초안산에 우거진 잡목더미를 뒤지다가 사방이 트인 정상에 올라 약간 치량하게 '비목' (장일남 작곡, 한명희 작사)을 흥얼거린다. 이 노래는 1967년에 작곡됐다. 한국 전쟁 때 작곡자 장일남 선생이 전투가 치열했던 월면 부근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널려 있는 시체들과 이름 없는 비목(碑木)을 보았던 기억이 되살아나 작곡한 것이다. 가사의 고난스런 배경이나, 단조에서 느껴지는 고독·우수 등이 엉뚱한 곳, 궁녀들의 공동묘지에서 문득 공감을 일으킨다.

사진작가 최진천 선생과 함께 초안산 일대를 탐험가처럼 뒤지다가 발견한 비문이 적힌 비석 하나. 비장감과 환희가 뒤섞여 흠뻑 오른다. 잡목 사이에 널어진 채 '상궁 박씨묘(尙宮朴氏墓)'란 명문이 새겨진 비석을 발견했다. 숲속을 뒤지면서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비석, 상석은 수십 개를 봤다. 아예 그것마저 없이 허물어져 가는 무덤도 수도무다. '상궁박씨묘', 다섯 글자를 직접 발견하니 기분이 묘하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과 도봉구 창동 사이에 있는 해발 100여m 초안산은 조선 왕실의 비밀을 무덤까지 안고 간 이들이 잠들어 있다. 남녀유별이라, 내시들의 무덤과 궁녀들의 무덤은 수백 미터 떨어져 있다.

절대 권력자는 고독하다. 그러나 그 고독은 사치스런 것이기에 빠져보고 싶기도 하다. 왕의 고독은 주어진 것이고 수행자의 고독은 선택한 것이다. 왕은 고독의 공포를 달래기 위해 여색을 탐하고 수행자는 고독과 싸우고 고독을 즐긴다. 왕과 한 울타리 안에서 살며 권력의 흥망, 사치와 굴욕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궁녀들, 그녀들의 삶과 죽음을 살펴본다.

왕족을 제외한 궁중 모든 여인들을 총칭하여 궁녀(宮女)라 한다. 내인(內人)들과 그 아래 하역(下役)을 맡은, 무수리(水手)·각심이(榜衣)·방자(房子)·의녀(醫女)·손님이라 불리는 여인들이 범주에 든다. 그러나 보통 궁녀라 하면 상궁(尙宮)과 내인으로 분류되는 여인들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궁녀로 포괄되는 여인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수리: 무수리는 물고어이다. 궁중 각 처소에서 막일을 담당하는 여인이다. 21대 영조의 어머니는 무수리 출신이다.

② 각심이(榜子, 또는 房子): 상궁의 처소에서 부리는 가정부·식모·침모 등의 총칭이다. 이들의 월급을 국가에서 지급했으므로 방자라고도 한다. 방자란 관청의 사환



초안산에 위치한 내시 묘.



상궁묘의 비문(위), 상궁묘의 비석.

## 의식주 담당하는 궁녀, 왕족 사생활 위한 '사치노예' 가문 궁녀 방출, 궁녀제도 부당성 국가가 인정한 증거

으로, 예컨대 <춘향전>에서의 방자와 같다.

③ 손님: 왕의 후궁으로서 당호(堂號)가 바쳐지고 독립 세대를 영위하는 여인의 집에서 살림을 맡아하던 일종의 가정부 같은 여인이다. 대개 친정붙이이며, 보수는 후궁의 생계비에서 지출된다. 따라서 손님이라는 이름은 궁 밖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무수리나 각심이와는 달리 예의를 갖춘 말이다.

④ 의녀: 약방 기생이라고도 한다. 약방이란 궁중 내의원(內醫院)의 별칭이며, 의녀의 소속이 내의원이지만 전신(前身)이 기생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소입은 평상시에 궁녀들에게 짐을 놓아주기도 하고 비·빈들의 해산에 조산원(助産員) 노릇도 하지만, 궁중의 크고 작은 잔치가 있을 때에는 기생으로 변신한다. 원삼(圓衫)을 입고, 머리에 화려한 화관을 쓰고, 손에는 색동 한삼(汗衫)을 끼고 춤을 추는 무희이기도 하다.

⑤ 내인: 궁녀들은 반드시 자신들을 상궁 내인이라 하여 상궁과 내인을 구분하였다. 내인과 상궁은 그들 사회에서는 차원이 다

를 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궁녀의 신분적 등급은 견습나인·나인·상궁의 세 종류다. 세 종류 가운데에서도 입궁 연조와 소속 부서에 따라 차등이 있다. 같은 상궁이라도 경력에 따라 정7품도 있고 정5품도 있으며, 또 같은 정5품의 상궁도 소속 부서의 격에 따라 권한과 입지가 다르다.

궁녀는 왕족의 사생활을 위한 일종의 사치 노예이므로,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의식주로 분장(分掌)된 각 독립처소이다. 지밀(至密)·침방(針房)·수방(繡房)·내소주방(內燒廚房)·외소주방·생과방(生果房)·세답방(洗踏房)의 일곱 부서 외에 세수간·퇴선간(退膳間)·복이처(僕伊處)·등축방(燈燭房)의 네 부설 부소가 있다.

위 부서에 소속된 궁녀들을 일반 개인 가정과 비교하면, 지밀나인은 몸종격으로 가장 격이 높고, 침방·수방 나인들은 침모(針母), 소주방과 생과방은 잔간(饌間)의 식모들이다. 궁중에는 무수리가 하역(下役)을 맡았다. 세답방은 표모(標母)로서 빨래 일

을 맡는데, 일반 개인 가정에서는 빨래를 보통 노비가 하고, 다리미와 다듬이질은 대개 경력이 많은 부인들이 맡는다.

따라서 궁녀의 격은 지밀이 가장 높고, 다음은 침방과 수방으로, 이들은 양반 부녀와 같이 차마도 외로 여며 입고 앞치마를 두르지 않고 길게 늘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그것은 마루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성격상 소주방이나 세답방 나인같이 차마를 걸어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위 세 부서 외의 다른 부서는 차마를 바로 입고 앞치마를 위에 둘러 걸어 올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사가 있는 곳도 지밀과 침방·수방뿐이다. 나머지 부서들은 생(絲)을 뿜 수 없으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다.

궁녀의 수는 중국 한대에 약 600명 정도였다. 궁녀는 왕이 있는 법궁(法宮, 또는 본궁) 뿐만 아니라 제사궁(祭祀宮, 혹은 魂宮)과 별궁에 소속된 여인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본궁의 궁녀들은 별궁나인을 '궁것'이라고 경멸했다. 본궁의 경우, 왕을 비롯해 모두 독립세대로 영위되며 왕과 왕

비와 왕대비 등은 같은 규모의 궁녀 인구를 갖는다. 궁녀가 90명이라 할 때 왕·왕비·대비전의 처소별 궁녀수는 대개 지밀 20~27명, 그밖에는 15~20명 정도로 추측된다.

궁녀 사회에도 간부들이 있다. 총수적인 우두머리 상궁과 그 밖의 말은 바 직책의 중요성에 따라 특별대우를 받는 궁녀들이 있다. 즉, 제조상궁(提調尙宮)으로 큰방상궁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많은 궁녀들 중에 어른으로 왕명을 받들고 내전(內殿)의 재산 관리를 담당했다. 예우는 오늘날 장관급이다. 또한, 아리포(阿里圃)상궁으로 불리는 부제조상궁은 내전의 창고(倉庫, 아랫고·下庫)의 물품을 관리했다.

그리고 일명 지밀상궁으로도 불리는 대령상궁(待令尙宮)은 왕의 측근에서 항상 그림자와 같이 시위(侍衛)했다.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상궁이다. 왕자녀의 양육을 담당했던 보모상궁(保姆尙宮)이 있으며, 이들 중에서 왕세자의 보모가 가장 격이 높았다.

또한, 지밀상궁 중에서 궁중 의식이나 잔치 때 왕을 비롯한 왕비·왕대비 등의 인도와 진행을 담당했던 시녀상궁(侍女尙宮)은 지밀의 사책 관리와 국상(國喪) 때 곡을(哭)을 담당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감찰상궁(監察尙宮)은 궁녀들의 상벌을 담당했으며, 감시병 구실도 겸한 두려운 존재였다. 궁궐내의 모든 궁녀들은 입궁에서 퇴출(退出)까지 원칙적으로 종신제다. 왕의 직계 및 그 배우자 외에는 후궁도 궁중에서 죽을 수 없으므로, 늙고 병들면 궁녀는 궁궐을 나가야 한다.

궁녀의 선출은 원칙적으로 10년에 한번이었지만 예외도 있었다. 지밀나인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워서 상궁들이 두세 번씩 선출을 보러 나갔다. 그러나 대개 연줄과 세습이라 할 수 있으며, 고모가 조카를 들여놓는 경우가 많았다.

궁녀의 출신 계급은 지밀과 침방·수방은 중인 계급, 기타는 대개 삼민 계급이었다. 입궁 연령은 지밀이 가장 어려 4~8세, 침방·수방이 6~13세, 그 밖은 12~13세가 관례였다. 궁녀는 입궁 후 15년이 되면 계례(성인식, 신랑 없는 결혼식)를 치르고 정식 나인이 된다. 남색 치마에 옥색 저고리, 머리에는 개구리털지를 단 제복이 일생 동안 그들의 복장이다. 나인이 된 뒤 다시 15년이 경과되면 상궁으로 승격한다. 가장 빠른 4~5세 입궁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35세 이후야 상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외로, 왕의 후궁이 되면 20대에 상궁이 된다. 이런 궁녀는 왕의 자녀를 날

기 전까지는 상궁의 신분에 머물러 있지만, 그 대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왕의 곁에서 시위만 한다. 이러한 경우를 승은상궁(承恩尙宮)이라 했다. 이들이 왕의 자녀를 낳게 되면 종6품 속의(淑儀) 이상으로 봉해져서 독립세대를 영위한다.

가혹하게 말해서, 세자는 왕이 죽기를 기다리는 사립이다. 그래서 부자간에 갈등과 경계가 심했다. 궁녀는 승은 입기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존재다. 궁녀는 지밀내관(=채색교관, 내시)으로부터 정사교육을 받는다. 발뒤꿈치 들고 다니기 훈련, 앉은 채 방바닥에 걸레질하는 자세 훈련, 왕의 복상사대비 구급훈련, 득남 비방훈련, 설경훈련, 왕의 안마 등 교육내용이 다양하다. 설경(舌耕)훈련은 겹집이 얇은 연시를 혀로 다루는 실습이다. 얇은 연시 겹집에 상처가 나면 퇴출이다. 복잡하고 섬세한 훈련에 불과한 궁녀로 남고 탈락하면 세답방에 배속되어 평생 갓발을 손 톱질 불으며 빨래감과 씨름해야 한다.

궁녀의 보수는 고정적으로 아기나인이 한 달에 백미 너말(4마 : 오늘날의 3두푼)이고, 옷값이 1년에 명주와 무명 각 1필, 여름에는 베·모시도 하사품으로 내려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다. 식생활은 궁중에서 해결되므로, 이러한 보수는 천가 부모·형제들에게 보탬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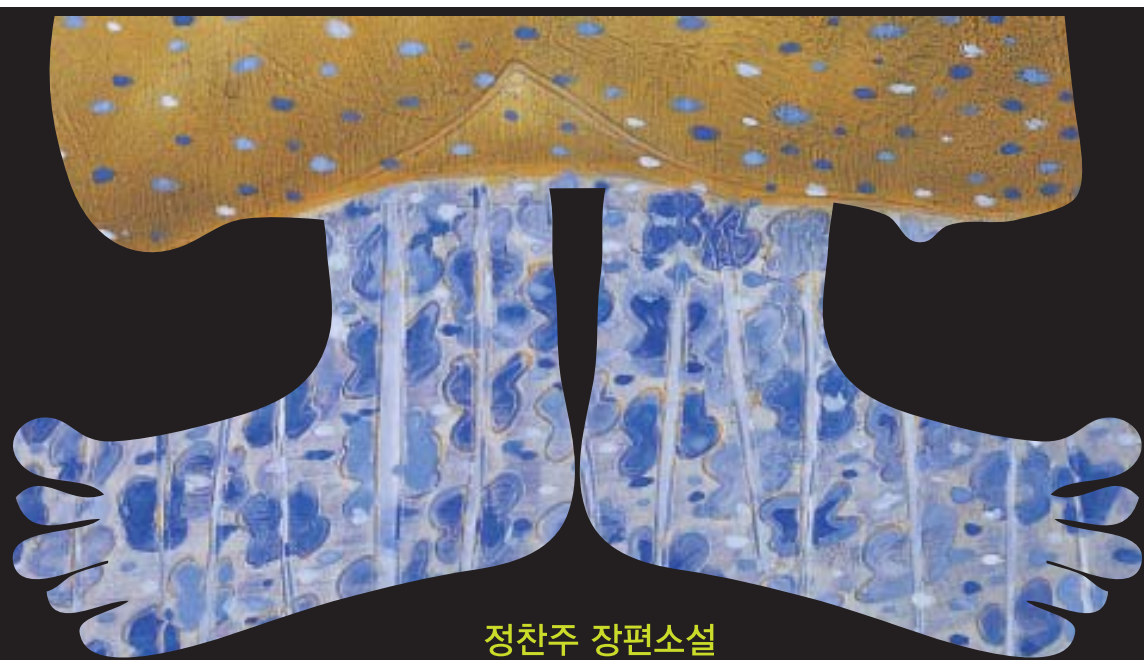
궁녀는 원칙적으로 종신제지만, 특별한 경우, 즉 중병이 들었을 때, 가문으로 궁녀 방출이 결행될 경우(단, 젊은 궁녀, 모시고 있던 상전이 허락했을 경우) 중도에 나갈 수도 있다. 특히, 가문으로 인한 궁녀 방출은 젊은 궁녀가 헛되이 왕궁의 그늘에서 늙어 가는 부당성을 국가에서 인정한 증거이다. 결국 이러한 궁녀 제도는 절대군주국가 시기의 희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궁녀는 궁궐에서 죽음을 맞지 못했다. 늙고 병들면 궁을 나가 분가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는 혼인을 해서도 안 되고 첩이 돼서도 안 된다. 궁궐에서 자라 궁궐에서 핀 꽃이지만 궁궐 밖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로이 지내려다 마지막 순간까지 궁궐을 향해야 한다. 궁녀들의 무덤 역시 내시와 마찬가지로 머리가 서쪽을 향한다. 죽어서도 왕을 그리고 보좌해야 한다. 온 좋게 비석을 세우더라도 이름을 새기지 못했다. 그림자로 살다가 죽어서도 잊혀진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언제 누구를 모셨는지 모르지만 '박상궁'은 운이 좋다. '상궁박씨지묘'라고 적지 못하는 것도 당시의 법도인 모양이다.

글·이우성(소설가 asdfang@hanmail.net) 사진·최진천(사진작가)



천불탑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동안 우리는 어느덧 비밀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이 되어 때로는 가슴 조이고 때로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흥미진진한 천불탑의 비밀 속에 빠져든다.  
저자 정찬주 / A5판 / 322p / 정가 10,000원



정찬주 장편소설

# 천불탑의 비밀

정찬주 작가의 이 작품은 참으로 독창적인 소설이다. 이 소설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 그 하나는 신화와 같은 '황룡사 9층 목탑' 이요, 또 하나는 '인도로 가는 길' 이다. 이 두 가지의 씨줄과 날줄과 같은 주제 위에서 인생의 의미를 작가는 캔버스 강 의 그 장엄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젊은 전속설계사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지한 질문이 그러나 매우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소설의 전개 위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인생의 의미를 이처럼 소설 공간 속에 훌륭하게 마법의 웅단처럼 펼쳐 보이는 정찬주 작가의 소설에 깊은 찬탄을 보낸다. 최인호 \_ 소설가

황룡사 목탑 복원과 연계, 추리소설식 전개 '흥미' 진신사리 찾는 수행자 통해 '불교 참모습' 되물어 \_ 불교신문

인생의 의미를 마법의 웅단처럼 펼쳐 우리들의 가벼워진 삶에 의문을 던지며 황룡사 9층탑의 눈부신 재현으로 우뚝 솟은 불교 장편 소설!!!



헤인 스님의 신심, 원력 이야기  
신심 원력  
글. 헤인 스님  
신국판 값각권 10,000원

헤인사 정경리에서 108만배, 제주약원사 창건, 일타 스님의 인연, 제주약원사 최주스님의 수행 이야기 신심과 원력의 불영이가 지금 서점가에서 떠오른다.



세상을 떠나 세상의 소리를 풀어내다  
소리  
글. 헤인 스님  
신국판 양장, 251쪽, 값 12,000원

송광사에서 10여 년 동안 수행의 한 방편으로 수련회를 이끌었고 거금도 섬으로 들어가 뒤 종문으로 혹은 신문기 사로 접하던 헤인 스님의 그간 이야기 가 담담하게 담겨 있다.

도서출판 클리어마인드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두산위브빌리온 736호 전화. (02) 2198-5151